

申維翰의 海遊錄 研究

李 慧 淳*

- I. 서 론
- II. 일본에 대한 양면적 인식
 - 1. 仙境과 이무기의 소굴
 - 2. 當國強兵과 문화적 야만
- III. 韓日漢文學의 교류
 - 1. 일본문사들과의 시문창화
 - 2. 일반인들의 詩文요구
- IV. 해외체험의 문학적 표출
 - 1. 바다의 체험
 - 2. 異國風物의 수용
- V. 신유한의 일본 체험과 자각
- VI. 결 론

I. 서 론

역사적으로 일인들은 일본에 건너간 우리측 사신들에게 시문을 요구하여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우고 있었다. 이것은 고려말 鄭夢周를 비롯해서¹⁾ 조선조 세종시 사행했던 宋希璟의 日本行錄에도 보여지고 있으며²⁾ 임란직전 제술관으로 일본에 갔던 車天輅도 일인들의 요구에 응해 많은 시를 남겼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우리 사신에 대한 시문요구가 일반 민중에까지 보편화 되어 대규모로 나타난 것은 조선조 후기 우리의 통신사들이 12회에 걸쳐 파견되었던 시기일 것이다. 통신사를 구성하는 정사, 부사, 종사관의 삼사신과 제술관, 세 서기들은 물론이지만 글에 그다지 능하다고 할 수 없는 역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정도로 상하를 물론하고 일인들은 조선사신에게 시문을 받는데 적극적이었다.

한편 우리 사신들도 우리의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가능한 한 이들의 요구에 응해 그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하여 쌓여진 사행시문과 한일 양국 문사의 창화집이 각각 한국과 일본에 보존되어 있어 당시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의 여러 모습을 이해하게 한다. 우리나라 사신이 기술한 사행록들은 그 저자가 정사, 부사, 종사관, 제술관, 역관등으로 그 기술 태도나 주목하는 대상, 접촉하는 인물 역시 작자의 신분 따라 상이하다.

* 梨花女大 國文科 教授

1) 鄭夢周, 奉使日本作詩, “... 山僧每爲求詩至, ...” 海行摠載 I (民族文化推進委員會)

2) 宋希璟, 日本行錄「盛福寺僧七八輩來求詩」, “... 求詩釋子往來頻” 海行摠載 속편 VIII

또한 같은 17, 18세기라도 후대로 가면서 일본의 형편과 사신을 맞는 일본의 자세에 변모가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의 경우도 사신의 행차가 거듭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지식이 이미 전임 사신들의 기술을 통해 풍부해지고, 일본문사와의 교류도 대를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확대되어 간 점이 보여지고 있다.

12회에 걸친 통신사행중에 일본측의 접대가 가장 정중하고, 또 양국 문사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것은 1682년 壬戌使行, 1711년 辛卯使行, 그리고 1719년 己亥使行이 될 것이다.

1748년 戊辰使行에는 대마도에서 副使의 기선이 불에 탔고, 1764년 甲申使行시는 훈도 崔天禧가 일인에게 피살되었는 바 正使 趙巖도 대접이 전에만 못하다는 기록을 자주 하고 있어³⁾ 이미 다음 세기 일어날 한일간의 파탄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여행은 중국과는 달리 해로를 통한 여행이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여행이었다. 조선과 일본을 갈라놓고 있는 바다는 ‘독기가 있는 바다’(瘴海)였고, 그 물결은 ‘고래처럼 사나운 파도’(鯨波)로서 묘사되어 왔다. 더욱 그들의 마음 속에 일본은 중국과 달리 문화적으로 뒤떨어졌으며 고려때부터 우리를 괴롭힌 왜구의 본고장일 뿐 아니라 더욱 임란의 상흔을 안겨 준 침략국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기행은 즐겁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오랑캐의 나라였다.

그러나 그들이 풍랑과 파도 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도착한 일본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들에게 일본은 해뜨는 扶桑이었고, 그래서 신선의 고향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더욱 당시 일본은 물산의 풍부함, 정치적 안정으로 부와 사치를 구가하며 살던 시기였으며, 또한 이러한 물질의 부를 수반할 문화적 교양에 대한 상승욕구도 대단하여 조선통신사를 폐지하여 따라다니며 시와 문을 청하노라 거리가 메이고 문이 막히던 때였다.⁴⁾ 이러한 일본인들의 상승욕구는 거의 모든 사행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제술관 신유한을 통해 그 극치에 달했던 시기가 1719년 기해사행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측은 끊임없이 조선통신사의 의의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문사들의 조선통신사와의 접근을 금지한 것이라든지, 조선통신사와 시문을 증답한 무리들을 浮華하거나 未熟한 무리들로 몰아서 자신들의 수준을 감추려 했으며,⁵⁾ 조선통신사에 대한 지극한 환대에 불만을 토로한 유명 문사들이 적지 않았던 것등이⁶⁾ 그 일례로서, 이것은 모두

3) 趙巖. 海槎日記, 海行摠載Ⅶ. 原文影印本, p.36.

4) 申維翰, 海遊錄 (海行摠載 原文影印本, I), p.48.

5) 中井積善, 草茅危言(朝鮮の事), 片野次雄, 徳川吉宗と朝鮮通信使(誠文堂 新光寺, 1985)에서 再引用함.

6) 예로 新井白石은 그의 “折りだく柴の記”(日本の名著 15, 中央公論社) p.30에서 당시 조선통신사에 대한 대접이 자기나라의 직사를 대우할 때보다 더 융숭함을 비난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대등할 수 없었던 그들의 갈등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일본학계가 조선통신사를 통한 문화적 수용을 밝히는 작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⁷⁾

본고는 18세기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문학 교류를 고찰하는 일 환으로서 먼저 신유한의 해외유학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것과 준 것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해외체험을 통한 공간적 확대가 문학작품에 어떻게 나타났으며, 당시 일본과 일본인들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더욱 일본인의 신유한에 대한 시문요구나 그곳 문사들과의 시문 교류는 어떠한가 등이 주요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러한 일본 기행과 당시 18세기의 정신사적 특징과의 관계이다. 이 시기는 조선에서도 실학사상이 발흥하여 상당히 널리 지식인들의 호응도 받았고 이것을 燕行했던 지식인들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었다. 일본도 이미 당시 서양과의 교류와 경제적인 여유 속에 중화적 세계주의에서 벗어나 근대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변모가 이것을 직접 견문했던 당시의 한 지식인의 눈을 통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조심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통신사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강호막부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지방의 영주, 무사, 농민, 상인에 이르기까지 거국적인 것이어서, 조선이 당시 일본에 대한 문화적 시혜국이었던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들의 지나친 시문 요구가 오히려 우리측 사신들에게 문화적 우월감과 자만에 빠지게 하여 일본의 진면목을 깊이 이해하는데 역작용을 한 것은 없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연행록이 새로운 사상과 사회적 기풍을 일으키게 한 점과 상비가 되거니와, 이것은 다음 세기 변모된 일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우리의 자세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⁸⁾

7) 예로 田中健夫, 日鮮關係史の研究(東大人文科學研究所, 1975)에서 조선통신사의 의의를 전혀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8)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下(吉川弘文館, 1969), p.343.

9) 본고의 텍스트는 民族文化推進委員會編, 국역 海行摠載 I, II 후면에 영인, 수록된 申維翰, 海遊錄 上中下 三卷과 附錄 聞見雜錄이다. 본문에 기재된 페이지는 이 책에 의거한 것이다. 그밖에 梨大 도서관 소장본인 申菁川維翰著 海遊錄(경성조선연구회, 대정 4년)을 참고했는데, 이것은 上下 二卷으로 分卷된 것 외에는 海行摠載 영인본과 同系의 것이다. 姜在彦氏는 그의 “朝鮮通信使と鞆の浦”에서 신유한과 伊藤梅宇와의 唱和사실이 수록된 海遊錄을 언급하고 있는데, 필자는 보지 못했다.

II. 일본에 대한 양면적 인식

I.仙境과 이무기의 소굴

통신사들이 처음 부산을 떠나 일본을 향할 때에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이국에 대한 호기심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신유한의 경우는 오히려 미지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자못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絶影島에서 쓴 시에서 “멀리 뺀 고장을 지나 차례차례 이름난 곳을 찾으리. 쇠락하게 정신나는 구경하며 날고뛰어 웅장했던 뜻에 맞추리.”¹⁰⁾ 라고 기대감을 표시했고, 다른 시에서는 “기쁘도다 수풀속의 새이던 내가 바람 탄 대붕과 함께 하늘을 나오네”¹¹⁾ 라고 그의 여행의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떠난 첫번 기착지인 佐沙浦에 이르러 쓴 시에서는 “이미 고향 생각을 먼 놀이에 부쳤고”¹²⁾ 라는 시를 읊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국에 대한 적극적인 호기심이 그가 지나가는 곳곳의 경물을 침략국에 대한 편견없이 순수하게 감동하고 감상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643년 부사로 일본에 여행했던 趙綱이 “내 고장이 아니라서 산도 보기 싫구나.”(竟非吾土厭看山)하던 것이나¹³⁾ 적간관의 승경을 보면서 “설령 참으로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리 땅이 아닌데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勝景과 佳趣가 우리나라의 것이 더 뛰어난을 주장하던 趙巖과 비교하면¹⁴⁾ 신유한의 적극성을 알 수 있다.

신유한이 처음 발견한 일본은 마치 신선이 사는 선계 같다는 것이다. 佐須浦, 豊崎, 西泊浦, 船頭港, 對馬島등을 거쳐 藍島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 섬들을 신선이미지와 연관시켰다. 예로 좌포에서 쓴 시를 보자.

바다 동쪽 신선의 땅이 전생부터 인연인데,
사면 연꽃같은 봉우리가 푸른 놀에 싸였네.
은하수에 때때 타던 사람 생각나고,
무릉도원 꽃 속에 노젓는 것도 같네.¹⁵⁾

여기서 시인은 일본의 첫기착지인 좌포를 신선이 사는 구역이라 부른다. 日記에 의하면 좌

10) 海遊錄上, p.49. “…悠悠經絕俗, 歷歷訪名區, 灑落供神賞, 飛騰協壯圖 …”

11) 海遊錄上, p.50. “…自喜林間翼. 扶搖共九天. …”

12) 海遊錄上, p.51. “…已把鄉心輸汗漫, 頓驚詩格起雄豪 …”

13) 趙綱, 東槎錄(海行摠載V), p.49.

14) 趙巖, 海槎日記, p.19.

15) 海遊錄上, p.51. “…仙區宿債海東涯, 四面芙蓉匝翠霞, 忽憶乘槎銀浦夜, 還如擊棹武陵花”

포는 산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는 바다물이 통한다고 한다. 그는 이 산을 부용화 같다고 했는데, 부용산, 부용성 등은 모두 선계와 관련된 이름이며, 특히 이 산을 푸른놀이 둘러싸고 있다하여 신선의 지역답게 이곳을 신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선 이미지는 이곳을 배를 타고 은하수에 가 견우성과 직녀성을 본 星槎의 고사와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에 연관시킴으로서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천상과 지상의 연관은 忽憶, 還如 등으로 과거와 현재의 연결의 형태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시인은 선계와 지상,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간자의 위치를 취한다.

이렇게 일본을 선계로 보는 인식은 그 뒤에도 계속 나타난다. 鱗浦에서는 神壑(귀신이 숨겨놓은 기이한 산천)을 이번 길에 혹시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보였고, 남도의 서산에서는 그곳이 신선이 사는 十洲보다도 더 빼어나서 신선의 무리가 오더라도 이 경치 앞에 오히려 머뭇거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치를 자신이 볼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선계에서 하강할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황홀해했다. 그는 남도에서 서산유람의 소감을 묻는 통사에게 “내가 지금 황홀하여 정신을 잃어 내 몸 밖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만약 내 일생 백년 즉 3만 6천 일에 길이 이속에 있어서 살 수 있다면 바로 겨드랑이에 날개가 생겨 신선이 되어 올라 갈 것이다.”(p.57)라고 농담을 했다. 서박포에서는 “西浦懷仙歌”를 지었고, 남도에서는 “藍島望仙曲이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일본에 부여한 선계라는 인식때문에 그의 시에서는 신선과 선계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는 특히 富士山賦에서 부사산을 해외의 선산인 圓嶠山이라 부르면서 麻姑, 赤松子 같은 신선의 무리가 살고 있는 “뭇신선의 보배”라고 묘사하고 있는 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일본의 경치에 매료되어 있었나를 말해준다. 실제로 그는 대판에서 “산천, 누대, 인물이 곱고 아름다웠고 대와 나무가 아름답게 우거져서 그 찬란함이 서로 어여쁨을 질투하여 다투어 자랑하는 것 같았다.”고 묘사하면서, “왼쪽에서 볼 때는 오른쪽의 관광을 놓칠까 두려웠고, 오른쪽에서 볼 때는 왼쪽의 것이 문득 더욱 기이하므로 배를 타고 반일 동안가는 사이에 두 눈이 다 붉어져서 마치 식욕많은 사람이 진수를 얻어놓고 배는 불렀으면서도 입은 당기는 것과 같았다.”(I.p.63)고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신유한은 아름다운 고장에서 사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이 이무기, 고래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일본 풍속은 대개 남 이기기를 힘써 이기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하물며 큰 군함을 가지고 이무기나 달리는 고래가 되는 것이겠는가”(I.p.55)

따라서 신유한은 이러한 선계에 고래나 이무기 같은 일본인이 산다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선두항에서는 “이 항구의 경치를 만약 장안의 귀공자들로 하여금 자기 근방에 갔다 놀 수 있었다면 마땅히 금수 같은 누대와 주옥같은 문장으로 천하에 자랑하게 되어

천하에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날마다 천만명씩이라도 가보게 될 것인데 불행히도 먼 바다밖에 버려져 있어 육되게 이무기와 고래의 소굴이 되었다.” (I.p.52)고 한탄했다.

“해상의 절승한 땅이 그릇되어 푸른 수건 쓴 아이와 이빨에 검정 물들인 계집이 짝지어 앉은 자리가 되는 데에 짓밟히고 말았으니 이것이 조물주의 무슨 뜻인가.” (I.p.59)

라고 하면서 이들 아름다운 산이 궁벽하고 먼 지역에서 이무기 입김속에 처해 있음을 아까워하기도 했다.

그는 조물주의 수단이 편벽하게 왜놈들을 위하여 허비한 것을 탄식하면서도 선경을 이해할 줄 모르고 사는 일본인이나 이해할 능력은 있으나 선경이 주어지지 않은 중화인이나 피차 같은 입장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결국 조물주의 뜻이 공평하다는 인식에까지 이르는데¹⁶⁾ 이것은 그의 중화적 세계관의 동요를 암시하기도 한다.

2. 富國強兵과 문화적 야만

신유한이 발견한 일본은 조물주가 내려진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하고 풍부함과 시원하고 기이한 경치가 천하에 으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옛글에 기록된 바, 계빈, 파사의 나라도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I.p.63)고 감탄할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그들의 경제력은 신유한이 객관적으로 묘사한 일상용품, 저택, 의복등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 예로 적간관에 도착해서는 “사관은 새로 지은 것인데 …… 금병풍, 비단 장막에 푸른 모기장이요, 마루에는 붉은 담요를 깔고 구리쇠 험으로 눌렀으니 그 사치스러움이 이와 같았다. 양쪽 언덕에 주민이 수천호 사는데 관광하는 남녀의 복색이 또한 화려했고 거리의 상점에 찬란한 물건들이 눈에 가득하니 또한 海門의 한 도회였다.” (I.p.59)라고 쓰고 있다.

또 靑浦의 福禪寺에 대한 묘사에서는 “집이 굉장히 컸고 장막과 기구가 풍부하고 사치스러웠다. 바닷가에서 사관에 이르기까지는 6~7리쯤 되었다. 노상에는 모두 겹자리를 깔아서 한 점의 티끌도 없었고, 5보마다 장대 하나씩을 세우고 장대마다 큰 등불 한개씩을 달아서 험로에도 밤이 낮과 같았다. 지붕은 층층 들어서서 한치의 틈도 없었고 비단 옷을 입고 구경하는 남녀가 동서를 메웠고 그 가운데에는 장사꾼 창녀와 부인(富人)의 찻집이 많았다.” (I.p.61)라고 했다. 河口에서 대관으로 가면서 이러한 부와 사치에 대한 묘사는 더욱 더 장황하게 나타난다. 대관에서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의 사치함. 절의 굉장하고 화려함과 물건의 풍부함과 묘사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이러한 경제력을 갖춘데는 자연의 물산이 풍부한 때문도 있겠으나

16) 海遊錄中, p.69.

그들이 상업이 발달하여 이미 長崎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신유한은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절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력에 대해서도 매우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대판의 화려함을 묘사하면서 “가석하다. 변화부귀가 잘못되어 흙덩이와 꼬챙이 같은 자를 호강시키는구나. “(可惜繁華富貴枉着一土梗耳)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이러한 그의 불만은 일본이 그가 생각하는 유교적 예법에 맞지않는 나라이면서도 부국강병하다는 사실에 기인된다. 그가 비판한 일본의 야만성은 무엇보다 관혼상제의 예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동성과의 결혼,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법, 남창들은 물론이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상복을 입지 않고 장례를 지키지 않는 점, 세찬에 규범이 없고 맨발로 공경을 표시하는 습속등이 그가 해피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들이다. 다음의 기술은 그의 이러한 견해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궁중에서 연회할 때에 좌우의 장벽에 발을 드리우고 보는 자와 구멍틈으로 엿보는 자가 있었으니 이들은 반드시 관백의 회침의 무리일 것이며 들으니 관백도 또한 그 가운데 있었다 한다. 규모가 이와 같고 사람을 등용함이 이와 같고 의식과 제도가 이와 같은데도 능히 부국강병의 장구한 낙을 누리니 실로 알 수 없는 일이다.(I.p.72)

그러나 여기서 신유한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경치나 풍부한 물산이 단지 조물주가 내려주신 천부적인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일본인의 노력에 의한 인위적인 힘으로서 이루어진 바가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V장에서 상론하겠지만 신유한은 당시 일본이 누리고 있었던 富의 이면에 관한 성찰을 게을리했다.

Ⅲ. 韓·日 漢文學의 교류

1. 일본문사들과의 시문창화

해유록과 부록된 聞見雜錄을 보면 신유한은 상당히 많은 일본의 문사들과 시를 창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만난 문사를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對馬島：雨森東(芳洲)，松浦儀(霞沼)

藍島(筑前州)：琴山，梅峰，少野玄林

赤間關(長門州)：小倉貞(省齋)，草場中章

鎌刈(安藝州)：味木虎(立軒)

牛窓(備前州)：松井氏(河樂)，和田正尹(省齋)

尾張州：木實聞，朝文淵，福昌言（鶴渚）

大阪（攝津州）：江若水，池南溟，三宅緝明（蒼溟），三宅茂忠（石屑），鳥山石輔（芝軒）
河間正胤，唐金興隆

江戶（武藏州）：林信篤（鳳洲），林信充（快堂），林信智（退省），和田長房（畿菴），大田重厚（翠陰），大津憲章（竹窩），井上由基（雪溪），飯田緯（東谷），津田玄寶（二水），吉田泰明（素行），眞木虎文（金縷），野浩（鸞洲），川副良有（柳塢），桂山義樹（鶴汀），佐佐木玄龍（池菴），小宮山嶠（桂軒），岡島璞（援之），源方敬（甘谷），戶田方弼，林良義（柏齋），林重熙（沖菴），河口嶠（鳳嶼）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신유한이 당시 상당히 많은 일본의 문사와 交歡했음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조선통신사에게 부여졌던 일본 문사들의 관심도를 알게 해준다. 이들 문사들중에는 儒者詩人뿐만 아니라 醫師詩人（北尾春圃，少野玄林），僧侶詩人（臥雲長老，湛長老，素盈）들이 모두 포괄되고, 太學頭 林鳳岡의 문도（小倉貞，大田翠陰，小宮山桂軒 등）와 임봉강과의 대립에서 밀려난 新井白石의 구름에 속하는 문사（雨森東，松浦儀，唐金興隆 등）들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유학의 배경도 藤原惺窩를 이은 林鳳岡과 木下順菴의 제자들, 伊藤仁齋의 古義學을 家學으로 하는 伊藤梅宇와¹⁷⁾ 山鹿素行에게 사사한 味木立軒, 林鳳岡의 문생이면서 荻生徂徠와 친교를 맺었던 문사들（岡島璞¹⁸⁾ 小倉貞），일생 벼슬에 나가지 않은 鳥山石輔의 제자（入江若水）들을 고루 만났고, 특히 이들 문사 중에는 당시 거벽 또는 당대 일본에서 제일로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었으며, 특히 雨森東, 松浦儀, 唐金興隆, 鳥山石輔, 林鳳岡 등은 현재 일본한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들이다.¹⁹⁾ 이로 보면 신유한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시 일본 문사들과 상당히 폭 넓은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측 문사들은 대체로 각 洲 또는 藩에서 유학, 시문, 문서를 관장하는 記室, 教授, 文學, 講官들이어서 그 시대 日本漢文學의 수준을 대표하는 이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밖의 문사들은 신유한을 따라 강호에까지 수행했던 우삼동의 소개를 받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들과 신유한은 시를 증답하거나 필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밖에 편지로 자신의 시문에 평을 구하거나 저서에 서문을 부탁하는 사람도 많았다.

일본문사들과의 필담은 시문창화가 그 중심을 이루지만 그밖에도 양국의 궁금한 점이 이야기 되기도 했다. 대판에 머무를 때 신유한이 가장 놀란 것은 서적이 많다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17) 주 9) 參照

18) 近藤春雄, 日本漢文學大事典(明治書院, 1985) 參照

19) 이들은 山岸德平, 近世漢文學史(汲古書院, 1987)와 猪口篤志, 日本漢文學史(角川書店, 1984.5)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名賢集이 모두 있었고 그중 退溪集이 가장 충양을 받아 집집마다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선비의 필담에는 반드시 퇴계에 관한 것을 먼저 물었다고 한다. 도산서원이 어느 고을에 있고, 후손이 몇 사람이 있으며, 선생의 기호가 무엇인지 등등 그 말이 매우 많아 이루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²⁰⁾

그밖에 어느 대판의 문사는 우리나라 문묘에 종사된 선현을 쓰는데 崔文昌, 薛弘儒로부터 沙溪文元公에 이르기까지 그 차례가 하나도 틀림이 없고 그밖에 禹祭酒, 李牧隱, 佔畢齋의 문학과 사적도 자세히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유한은 이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關市를 연 이후로 역관들과 긴밀하게 맺어서 모든 책을 널리 구하고 또 통신사의 왕래로 인하여 문학의 길이 점점 넓어졌으니 시를 주고 받는 사이에서 얻은 것이 점차로 넓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²¹⁾ 이것으로 통신사들이 직접 지어주는 시문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래 자체가 일본 문사에게 심어준 문학적 교양 또한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이미 서구와 왕래가 있어 세계 지리에 관한 안목이 있었던 점은 중화 이외의 나라에 눈이 어두웠던 우리 지식인들과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신유한이 우삼동에게 일본이 큰 바다 가운데 있으니 혹 山海經에 기록된 신괴한 형상을 가진 이상한 무리들이 표류되어 온 적이 있었는지 물은 것이라든지, 우삼동이 일본에 표류되어 온 사람중에 다리가 푸르고 소금을 먹다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자 신유한이 大荒經에 玄股國이 있다 하였는데 다리가 청색인 것은 현고라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소금을 먹는다는 기록이 없으니 상고하지 못하겠다.(I.p. 4) 라고 하여 漢代 또는 그 이전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山海經에 의거해서 서양을 파악하려 했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일본문사들이 물은 것으로는 우리나라 固有文字에 대한 것과 科擧에 관한 것 등이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세종대왕의 창제라는 것과 만물의 음을 다 포함했다는 자랑을 했고,²²⁾ 후자에 관해서는 과거제도와 자신이 합격한 과거의 試題, 座主名등을 자세하게 말했다.²³⁾ 이러한 질문들은 그에게 우리나라제도의 고유성이나 폐해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그의 '조선한시'에 대한 주장이나 과거제도가 없는 일본이 보여주는 문학적 장점등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필담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체로 신유한과 일본문사와의 교류는 시문증답으로 이루어졌는 바, 신유한은 이들에 대한 시문평을 기록해 두고 있다. 신유한의 일본 문사에 대한 평은 그리 높지 않은데, 이것은 이름

20) 海遊錄中, p.75.

21) 海遊錄中, pp.75 ~ 76.

22) 海遊錄中, p.74.

23) 海遊錄上, p.62.

이 나지않은 일반 문사뿐만 아니라 상등에 속한다는 문사의 시도 “왜인이 칭하는 상등에 속한다는 사람은 이와 같은데 불과하였다.”(尾張州의 문사 福昌言)(II.p.11)고 하였고, 대 판의 문사로 왜중의 거벽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천남현의 문사 三宅緝明도 그의 시가 문만 못하나 간간이 운치가 있었다고 했을 뿐이다.²⁴⁾

당시 일본의 漢文壇에서 태학두 임봉강 일문과 그의 추천을 받아 강호에서 녹을 먹는 문인으로 이루어진 관학파와 官界에서 去勢되었거나 지방의 낮은 벼슬을 하는 군소문인으로 이루어진 사학파간에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신유한은 잘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학과 중에는 1711년 신묘사행때 조선통신사의 일을 총괄했으나 후에 새 관백에 의해 소외된 新井白石을 중심으로 한 구룹이 가장 불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신유한이 만난 백석의 문사중에는 임봉강의 시문이 줄열함을 말하면서 그 일파를 “가소롭고 가소로운 자 들”(II.p.14) 이라고 공격한 사람도 있었다. 신유한을 동행했던 雨森東, 松浦儀 양인도 목하순암 밑에서 백석과 동문수학했던 사람들로 모두 관계에서 불여의했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신유한은 대체로 전자보다는 후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예로 당시의 태학두 林信篤은 4대의 조정을 지키면서 조선의 통신사와 4대째 접하고 있지만 그의 시문은 하나도 볼만한 것이 없다고 혹평했고²⁵⁾ 그의 아들 信充, 信智도 經延講官들이나 시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고 했으며,²⁶⁾ 임봉강의 문도들 역시 설새없이 찾아왔으나 “그들의 시는 밥을 먹다가 뽕을 정도여서 책상에 가득한 것이 말할 거리도 못되었다.”(I.p.72)고 비평했다.

그러나 신유한은 신징백석, 우삼동, 송포의의 시를 특히 칭찬한 것은 아니다. 백석과는 직접 대면이 없었고 단지 그의 시집을 통해 그의 시가 “곱고 명랑하여 중국인의 풍격이 있다.”(I.p.56)고 했을 뿐 그밖에 우삼동, 송포의의 시에 대해서는 우삼동이 자신의 시는 골동품 같이 진부하고, 송포의 시는 재치가 있으나 古談하다고 내린 평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⁷⁾

신유한이 비교적 호평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문사들은 鳥山石輔, 唐金興隆처럼 대체로 은거하여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조산석보의 시에 대해서는 “시가 모두 精峭하며 운치가 있고” 그의 문집은 “대저 고고하고 교묘 치밀하다.”(I.p.75)고 했으며, 당금흥룡의 시는 볼만한 것이 많이 있어 그를 “錚錚佼佼”(I.p.78)라 하여 서로 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신유한의 시문평은 거의 시의 가장 기본적인 작법을 거론하고 있는 바, 이것은 일본문사들이 시의의 전달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해피하고 치졸하여 읽을 수가 없다.’(대판

24) 聞見雜錄(海行摠載II), p.12.

25) 聞見雜錄, p.12.

26) 聞見雜錄, p.11.

27) 聞見雜錄, pp.11 ~ 12.

의 문사들)²⁸⁾ ‘말이 되지 않는 것’(林信智)²⁹⁾ ‘보잘 것 없다.’(林信充)³⁰⁾ ‘괴이하여 험하고 궁벽하여 한마디도 알 수 없었다.’(草場中章)³¹⁾ ‘평순하여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였다.’(味木虎)³²⁾ 등은 대체로 이러한 선상에서 말해진 것이다. 그러나 시에 비해서 문장이 뛰어난 문인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있는 것은 일본의 문사들이 자신의 수준을 개의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우삼동이 신유한에게 “일본에 문장을 배우는 사람들이 귀국과 아주 달라서 힘을 쓰는 것은 심히 부지런히 해야 하나 성취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 시문들이 반드시 줄하여 우스운 것들이 많을 것이나 친신만고하여 애를 써서 겨우 그들이 얻은 글이니 ……”(II.p.107) 운운한 것은 그들의 문학수준을 자인하는 말이기보다는 일문과 한문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말임을 신유한 역시 이해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조선통신사의 문학적 우수성이 결국 일본문사들에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했고, 이러한 현격한 차이의 인식은 그들이 한문학보다 일본 고유의 문학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일본 근대문학의 성립을 촉진시킨 한 동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해유록에 수록된 당시 關伯 吉宗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일본 사람이 조선의 문학을 사모하나 풍기가 각각 달라서 배워서 능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는 스스로 일본문을 하는 것만 못하다.”(I,p.70)

우삼동이 나이들어 和歌에 눈을 돌려 많은 작품을 산출한 것도³³⁾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일문화 교류에서 차지하고 있는 조선통신사의 의의를 상정해 볼 수 있거니와 이렇게 그들이 재빨리 방향을 선회한데는 일본문사들의 민족적 자존의식 역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711년의 사행시 통신사 업무를 담당했던 백석이 관백의 휘와 職號 문제로 시끄럽게 했던 것도 그러하거니와³⁴⁾ 우삼동이 신유한에게 조선인의 문집에 일본을 倭賊 또는 蠻酋라고 멸시한 것에 따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³⁵⁾

28) 海遊錄上, p.63.

29) 聞見雜錄, p.11.

30) 聞見雜錄, p.11.

31) 海遊錄上, p.60.

32) 海遊錄上, p.61.

33) 上田正昭, “朝鮮通信使と 雨森芳洲”,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映像文化協會編, 毎日新聞社, 1979)

34) 新井白石, “折りたく柴の記,” pp.128 ~ 137.

35) 聞見雜錄, p.14.

2. 일반인들의 詩文요구

일본 문사들과의 시문창화외에 신유한은 일인들의 일방적인 시문요구에 큰 곤혹을 느꼈다. 물론 이것은 신유한 이전에도 사신들이 일본인들의 성화에 크게 시달린 것이 나타나고 있지만, 신유한의 경우는 제술관으로서 그러한 요구에 임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서 간주했기에 더욱 그들의 시달림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시를 요청하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그가 남도에 머무를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먼 데서나 가까운데서 시를 요청하는 사람이 몰려 들었고, 종이책상 위에 쌓이며 글씨를 청하였는데, 써주고 나면 다시 모여들어 쌓이듯 하였고, 비록 뜰에서 일보는 하인들까지도 누구나 한자라도 얻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문득 손을 모아 이마에 대며 진왕의 호백구를 얻으려고 하듯하여 그 글씨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상관하지도 아니하였다.”(I.p.57)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좀더 큰 도회지에 갈수록 더 극성스러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로 대판에서는 글을 청하는 자가 다른 곳보다 배나 많아서 혹은 답이 울도록 자지 못하고 밥을 대하여서도 입에 넣었던 것을 토할 지경이었다고 신유한은 술회하고 있다.³⁶⁾ 이것은 오히려 대마도 왜인이 막아서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도 그 정도였다는 것이다. 일본조정엔 누추하고 낮은 평민의 서생이 우리 사신에게 접근하여 국위를 손실시킬 것을 두려워 하여 이러한 금령을 주관할 권한을 대마도에 주고 있었다.³⁷⁾

강호에서 되돌아 오는 길에는 신유한의 시를 요청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서 그는 도중에서 혹 가마를 멈추고 시를 지어주기도 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더욱 보잘 것 없어 기록할 수도 없다고 했고, 또 한곳에 도착하면 이미 시문을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 가득 대기하고 있어 한 떼가 글을 얻어 겨우 물러나면 또 한떼가 이르러서 눈을 붙이지 못하고 밤이 새었다고 한다.³⁸⁾ 이것은 이제 사신들이 귀국하면 좋은 기회를 두번 얻기 어려운 때문으로, 신유한은 어쩔 수 없이 매일 사신보다 먼저 출발하여 기다리는 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 名古屋에서의 상황을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물고기를 쥔 것처럼 모여 있었다. 앉아서 본즉 마루, 복도, 뜰, 마당에서, 좁아서 내려가는 사람, 끌고서 올라가는 사람, 둘러서서 열눈질 하는 사람들이 모두 시와 한마디의 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었다. 혹은 내가 전일 지어준 시로 채색장자를 만들어 낙관을 받

36) 海遊錄上, p.64.

37) 海遊錄上, p.64.

“... 尙聞有馬州倭, 阻撻不得入者, 盖使館深嚴, 所謂書生若是, 編氓兩蔑之輩, 則法所當禁, 而至於通言語主禁令, 則權左馬州, ...”

38) 海遊錄中, p.74.

아 가지고 가기도 했다. 혹은 자기들이 지은 시문고를 가지고 남에게 부탁하여 나에게 보이면서 한 마디의 비평을 구하기도 하였다. 동자가 먹을 갈기에 피로하게 보여서 왜인으로 대신 갈게 하였다. 점점으로 쌓인 종이 가 구름과 같았고 꽃힌 붓이 수풀과 같았으나 잠깐 동안에 바닥이 나서 다시 들어왔다. 나도 또한 기갈이 나서 때때로 자주 밀감을 깨물어 술안주를 하면서 고시와 율시를 의운도 하고 차운도 하였는데, 초를 잡는 것은 하나도 없이 쓰기만 하면 사람들이 소매에 넣어 가져가 버렸으니 몇편이나 되는지 나도 몰랐다. …… 새벽까지도 여러 사람이 아직 더 청하기를 마지 않았다.”(I, p.74)

직접 찾아온 사람뿐만 아니라 연줄을 통해 혹은 수천리 밖에서 대마도에 있는 여러사람에게 간접으로 부탁하므로 우삼동도 또한 소개하기에 피로할 정도였고³⁹⁾ 이러한 요구에 수응하느라고 “날마다 벼루와 먹 사이에 머리를 구부리고 있으면서 신 것 매운 것을 참고 삼키는 것이 마치 연자매를 돌리는 당나귀처럼 밟던 발자국을 그대로 밟는 것과 같았으니 가소로웠다.”(II, p.2)고 자신을 戲畫化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사신에 대한 일본의 시문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으며 이것은 시대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점은 일본측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조선인이 쓴 것이라면 무슨 글이든, 또한 누가 무엇을 썼던, 잘 썼던 못 썼던 상관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왜 이렇게 조선 사신의 시문을 얻는데 필사적이었을까. 신유한이 佐華에서 기록한 다음과 같은 말은 다시 한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 우리나라의 시와 문을 많이 얻은 자는 글의 잘되고 못된 것을 묻지않고 그것을 빙자하여 이름을 내려 하였다. 그들이 다투고 틈을 엿보고 기회를 만들어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탐욕많은 장사꾼이 재물에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으므로 …” (I, p.74)

이것을 보면 당시 조선통신사의 글을 많이 얻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흠모를 받았다는 것과 이들이 글을 구하는 태도가 마치 장사꾼이 이를 탐내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소유’ 자체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고 그것을 읽고 감상하며 배우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신유한이 처음 목적했던 시문을 통한 오랑캐의 회유와 교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신유한처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밤잠을 못자며 그들에게 준 주옥 같은 작품들이 그들의 칙략적 사고나 관념을 바꾸어 놓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재물을 많이 보유한 조선에 대한 탐욕을 그때부터 은연중 키웠을지도 모른다.

39) 海遊錄下(海行摠載II), p.12.

IV. 해외체험의 문학적 표출

1. 바다의 체험

신유학이 해유록에서 쓴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가 지나간 곳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확대가 눈에 띈다. 이것은 앞서 기행록에서 시를 남긴 사람의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신유학의 경우는 지나는 곳곳의 풍경에 정을 남겼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확대가 더 눈에 띈다.

일본에 가는 통신사가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곳은 물론 바다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산에서 배를 타기 이전에 먼저 海神에게 안전을 비는 제를 올린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어서 바다에서의 체험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나 실제로 우리의 서사문학에는 초월적이고 상징적인 바다외에 실제적인 체험에서 생생하게 그려진 바다의 모습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기행록이 보여주는 바다에서의 체험은 우리 문학사에서 확실히 공간 확대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유학이 바다의 위력에 부닥친 것은 그가 고국을 떠나 처음 佐須浦에 정착한 다음부터이다. 그는 그곳에서 초라한 음식 대접을 받고 한숨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쓴 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바다빛이 푸르리 절모를 응위하는데
 돛을 펼친 온 종일 물결이 잔잔하네
 구름가엔 고국인 계림이 컸고
 하늘밖엔 푸른 산 대마도 높았네
 이미 고향 생각은 먼 놀이에 부쳤고
 문득 詩想이 호기로운데 놀랐네
 꽃다운 물가 삼경 달에 닳줄을 내리고
 웃으며 왜인을 대하여 술을 마시네 40)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바다의 모습에 대한 그의 새삼스런 발견이다. 바다는 본래 관습적으로 蒼海였고 바다에서 보이는 산은 언제나 靑山이었지만 신유학은 이러한 관습적인 표현을 실감있게 체험한 것처럼 보인다. 바다와 산의 푸르름은 꽃다운 물가, 삼경의 환한 달, 향긋한 푸른 술과 이어져 그 색채감각을 더하고 있다.

40) 海遊錄上, p.51.

“海色蒼蒼擁節旆，張帆盡日靜波濤，雲邊故國鷄林大，天外靑山馬島高。
 已把鄉心輸汗漫，頓驚詩格起雄豪，芳州繫纜三更月，笑對蠻郎飲碧醪。”

또한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신유한이 바다를 통해 웅건한 시상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으로, 이것은 바다가 그에게 광대한 기상을 심어준데 있겠지만, 이러한 점은 그의 기록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논알이 널리 트여 우주가 크고/옷깃에 삼신산의 기이함이 뚝뚝

그래서 그는 심지어 “뗏목 타고 은하수에 가는 듯하고 대붕새가 멀리 하늘을 나르는 듯” 하는⁴¹⁾, 時空을 초월하는 飛翔과 上乘의 웅혼한 기상을 맛본다. 이 웅혼한 기상은 비바람 부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술취하니 산천이 타향이건 말진/시는 풍우를 겸하여 호기있네⁴²⁾

그는 바다로부터 웅혼한 기상을 갖게 됨을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왼쪽으로 바라보매 큰 바다가 푸른 하늘에 닿아 천하에 아무 것도 내 눈을 가리는 것이 없어 아득하게 그 가를 알 수 없고 넓어서 한계를 알 수 없었다. 헤아려 보건대 구주안의 백공 만물, 고금의 서적. 사마천이 구경했다는 것과 초나라 좌사가 읽었고 기억했다는 것이 탄환처럼 조그마한 것이었다. 돛대 아래 걸터앉아 소요유, 추수 등 여러 편을 읽으니 장자의 가슴 속이 조금 컸음을 알 수 있다.”

“...물결이 배 밑을 때리고 이지러진 달이 저 건너 물가에 곱게 비치면서 떨어질 듯 말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은하수를 타고 직녀성에 범하듯 하게 하였다.”

물론 신유한에게 모든 바다와의 체험이 꿈같고 아름다운 것일 수는 없다. 오히려 바다는 위험의 대상이었다. 상관에서 검애로 가는 도중에 그는 폭우가 탄환이 튀는 것 같이 내리는 경험을 하며 배속에서 밤을 지낼 때 다음과 같은 시를 쓰기도 했다.

물결소리 부딪히고 바람소리 성내는데
 봉창 밑 외로운 등불이 흰 귀밀털에 비추네
 꿈속에 분명히 고국을 찾았건만
 풍파가 이러한데 내가 어찌 가리요
 어룡이 출몰하고 밤구름도 시름한테

41) 海遊錄上, p.53.

“... 眼前寥廓八荒大, 衿邊點滴三山奇.
 ... 飄如月槎泝絳漢, 迥如鵬鳥翔天地 ...”

42) 海遊錄上, p.61.

... 醉任山河異,
 詩兼風雨豪.

돛대 밖은 아득하여 물가가 보이지 않네
 우습도다 뱃속에 만권의 글을 가지고서
 바다 하늘 바람비로 외로운 배에 누웠구나⁴³⁾

바다의 위력은 물결소리, 바람소리 등의 청각적 이미지로 구체화되나, 파성, 풍성, 어룡등의 시어가 모두 관습적인 것들이어서 그가 체험한 바다의 또다른 일면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어룡으로 파도의 흉흉함을 묘사한 것이 신유한의 시에서만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대한 바다의 변화를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외로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단절감, 막막함 그리고 自嘲의 감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모하는 바다에서 시인이 가지는 의식세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시에서의 바다의 모습은 대체로 관습적인 표현으로 대치되어 있음에 비해 비해 일기에서는 보다 세밀한 묘사로 아름답게 서술하고 있다. 그가 처음 배를 타고 바라본 바다를 “하늘과 바다가 시원하게 들어나며 부드러운 물결이 가벼운 바람에 일렁거리 파도 치는데 사망으로 보아도 끝이 없고 물결의 무늬가 비단같았다.”(I, p.50)고 했고, 산모퉁이를 돌아 바다 가운데에 나갔을 때 “이제 하늘은 한없이 아득하고 물결은 맑고 밝은데 다만 한가닥의 그림과 놀이 사망 산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북과 피리소리가 떠들어 내었고, 별과 은하수가 흔들거렸다.”(I. p.51)고 묘사하고 있다.

흥미있는 것은 신유한이 바다에의 체험을 통해 일본인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본인의 풍속이 배 조종하는 것을 재주로 알아 오직 빠르냐 더디냐를 경쟁하고, 또 일본 풍속은 대개 남 이기기를 힘써 이기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며,⁴⁴⁾ “왜인들의 성질이 경솔하고 급하여 일을 당하면 곧장 놀래 떠든 것”(I, p.55) 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것이 모두 섬나라로서 바다의 변화무쌍함, 파도에 의한 배의 운행 등에서 기인되었음을 체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異國風物의 수용

일본의 풍속을 묘사한 시는 정몽주의 시에서부터 그 일단이 엿보이고 그 이후 일본에 사행했던 통신사들의 사행록에는 더 광범위한 묘사가 보이고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그곳 풍물을 記事化하여 썼을 뿐으로, 신유한처럼 그들의 풍속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소재로 하는 악부시 형태의 아름다운 시를 남긴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유록에는 그가 대마도에서 머무르

43) 海遊錄上, p.61.

波聲拍拍風聲怒, 蓬底孤燈照鬢絲, 夢裡分明尋故國, 風波如此我何之.
 魚龍出沒夜雲愁, 帆外蒼芒不見洲, 堪笑腹中書滿卷, 海天風雨臥孤舟.

44) 海遊錄上, p.55.

는 동안 대마도의 남녀가 주고 받는 말을 가지고 지은 寬神曲(5언 절귀 10수), 대판에서 지은 창녀의 風情을 읊은 浪華女兒曲(5언 절귀 30수), 희롱삼아 왜인이 말하는 그대로 지었다는 男娼詞(7언 절귀 10수) 등이 있다.

새신곡은 증벽마을의 한 처녀의 시각에서 그의 결혼 생활을 노래한 시로 이를 통해 그들의 풍속이 자연스럽게 들어나고 있다.

鴻池白 술을 걸러
우리 두 사람 버리지 않기를 신앞에 맹세하네
나는 증벽의 처자
증벽 마을에 시집갔네 ⁴⁵⁾

이렇게 이루어진 첫수에는 흥지는 왜의 지명인데 술이 제일 좋은 것을 반드시 鴻池上諸白이라 한다는 주가 붙어 있다.

검은 색으로 새로 이를 물들이니
사람보면 부끄러워 말못하네
낭군의 왼팔 베고 누워
연거푸 左衛門을 부르네 ⁴⁶⁾

둘째 수에는 “왜녀가 시집가면 이에 검정 물을 들인다. 남자는 거개 좌위문이라 말한다. 이것은 새로 시집간 여자가 말한 것이다.”라는 주가 달려있다.

다음에는 남자는 薩摩刀라는 칼을, 여자는 유구 빗을 꽂는다는 것, 대마도에는 전답이 없고 한국 쌀로 밥해 먹는다는 것, 왜인의 풍속에 자손으로 성묘하는 사람이 등 한개씩을 다는데 달아놓는 등의 수효를 가지고 아들 많은 것을 자랑한다는 것 등등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 창녀의 풍정과 남창의 행태를 묘사한 시에 대해서는 공자가 시경을 편찬할 때 鄭聲과 衛聲을 그대로 존속시킨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자신이 이러한 음사를 짓는 명분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어, 그가 실제로 이국의 풍속에 얼마나 흥미를 보이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로 男娼의 경우는 鄭, 衛의 세상에서도 듣지 못하던 것이라고 하면서도 “청루에서는 계집이 사내를 사모한 것이요, 남창에 있어서는 어른이 소년을 사모한 것이니 역시 그들의 본정이다.”(I, p.65)라고 하여 애써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45) 海遊錄上, p.55.

瀝酒鴻池白, 誓神不相棄. 儂是鍾碧娘, 嫁居鍾碧里.

46) 海遊錄上, p.55.

玄華新染齒, 見人差不言. 獨枕郎左臂, 連喚左衛門.

남군은 누에 올라 자려 하는데
 나는 목욕탕이 좋다하네
 향탕에 나의 살결 씻고서
 웃음을 머금고 남군과 포옹하네.

여기에는 “이 나라 풍속은 반드시 목욕탕을 만들고 남녀가 함께 목욕한다.”는 주가 붙어
 있고,

남군의 머리는 푸르기 수박같고
 나의 이빨은 희기가 박속같네
 박이 나서 오이냉쿨 안으면
 어디엔들 엮히지 않으리.

이 시 말에는 “남자는 모두 머리를 깎았고 여자는 이에다 검은 칠을 하는 데 다만 기생의
 이빨은 희다.”라는 주가 있다.

杉重一組에는 사탕과 과실이요
 푸른 색 자기 잔에는 술이 담겼네
 취해서 三郎을 부여잡고 꽃밑에서 말하되
 붉은 낮이 거울 속 복숭아와 어떠할꼬? ”⁴⁹⁾

여기에는 “삼중일조는 곧 떡과 과실을 담는 그릇이다. 왜인의 남자는 三郎, 五郎으로 이름
 을 짓는 자가 많다.”는 주를 부기했다.

이러한 묘사는 왜속의 기이함, 또는 음행 등을 직선적으로 나열한 記事詩와 달리 이국의 풍
 물과 정취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즐길 수 있게 한다.

V. 신유한의 일본 체험과 자각

한일문사의 교류를 통해 신유한은 일본문사들의 시를 화답해주고 저서의 서문을 써주며 그
 들에게 문화적 교양을 심어주었고, 일반인들의 성화같은 요구도 일일이 들어주는 등 많은 것

47) 海遊錄上, p.65.

歡欲上樓眼, 儂言浴室好. 蘭湯澡儂膚, 含笑交歡抱.

48) 海遊錄上, p.65.

郎頭綠如瓜, 儂齒白如瓠. 瓠生抱瓜蔓, 何處不榮紆.

49) 海遊錄上, p.65.

杉重一組砂糖果, 青綠磁盃盃上醪. 醉把三郎花底語, 紅顏何似鏡中桃.

을 일본에 남겨주었지만, 그 자신 역시 사행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인식과 자각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신유한은 본래 문장으로 자임하던 인물이었다. 한번밖에 만나본 일없는 신유한에게 三淵居士 金昌翁이 써보낸 시는 흔히 상대방의 미화에 사용되는 어느 정도의 과장법은 인정하더라도 신유한의 文才를 잘 보여주고 있다.⁵⁰⁾ 신유한 스스로도 자신의 문장에 대한 자부가 대단했다. 해유록서문에는 그가 정사 洪致中으로부터 “조야의 공론이 모두 군에게 있고 …” 라고 하면서 제술관직을 받아들이기를 권한 서신을 받고 “인생의 운명이 너무도 헛소문 때문에 잘못되어 이름의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I, p.48)는 것을 푸념하고 있는 바, 이것은 실제로 푸념이기보다 자만이였다. 그는 시에서 이러한 자만심을 가끔 내비치곤 했는데, 船頭港에서 “山水가 감히 나를 잘 만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I, p.52) 운운한 것이라든지 주박마도가에서 “운향각의 작은 관원 네가 무엇인데, 외람되어 추천받아 청삼으로 따랐는고 배속에 가득 쌓인 것 같이라 하늘 보고 한번 웃고서 눈섭속이네”라고 한 것이나⁵¹⁾ 점애에 가는 도중 지은 시에서는 “우습도다 뱃속의 만권의 글을 가지고서, 바다하늘 바람비로 외로운 배에 누웠구나”라 하여⁵²⁾ 시문에 걸린 그의 자존심을 엿보게 한다.

그가 대마도주 앞에서 사사로이 시를 쓰는 전례를 양국간의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깨뜨린 것도 그의 이러한 자존심과 연관된다. 그는 “만약 끝끝내 도주는 앓고 나는 절하는 예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임금이 보낸 제술관으로 하여금 번신에게 체모를 잃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뱃속에 든 시서를 백금 한 봉지에 팔게”(I, p.54)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거부한다. 이러한 행동은 사신의 자리까지 교자를 타고 왔던 대마도주를 보고 결연히 자리에서 물러났던 金鶴峰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 신유한의 경우 자신의 문학적 능력에서 오는 자만심도 적지않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유한은 일본에 도착한 이후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와 놀랄만한 부를 대하면서 상당한 심적 갈등을 느끼게 된다. 그는 일본을 선계로서 착각할 정도로 그곳의 경치에 매료되었으며, 일본인이 향유하고 있는 부귀는 그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일본에서 발견한 미덕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일본인의 규율적인 행동과 청결함이었다. 400여명으로 구성된 조선통신사 일행의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는 바, 일본인

50) 海遊錄上, p.49.

聲名自朱鳥, 足目又歸墟. 天地東南缺, 文章屆宋餘.
揚帆謝康樂, 肆筆木玄虛. 將見蛟宮裏, 流傳蘿洞書.

51) 海遊錄上, p.52.

… 藝香小吏爾何爲, 辱蒙薦拔青衫隨. 腹中磊磊五千言, 仰天一笑仍低眉.

52) 海遊錄上, p.61.

… 堪笑腹中書萬卷, 海天風雨臥孤舟.

들은 이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모여드는 등 조선통신사에 대한 관심은 거국적인 것이어서 어떤 일인들은 식량을 싸가지고 오면서까지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신유한은 기록하고 있다.⁵³⁾

그러나 당시 그들이 보여준 질서정연한 모습은 일인들의 시민의식이 이미 상당히 높았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배가 대마도에 닿았을 때 “구경하는 남녀가 고기비늘처럼 연달았는데 혹은 마루에 앉아서 보고 혹은 발 새로 엮으며 혹은 담밖에 섰고 혹은 길옆에 섰는데 앉으면 반드시 꿇어안고 서면 반드시 팔짱을 하여 감히 떠들거나 거만스레 보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뛰어 나와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고(I, p.52) 또 대판에 들어가는 길에 양쪽에 관광하는 사람이 늘어서 있는데도 때때로 어린애와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뿐 “그밖에는 한 사람도 자리에서 나오거나 길을 범하거나 떠들거나 하는 자가 없었다.”(I, p.63)고 그의 놀라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은 그들의 청결함에서도 엿보인다. 일본의 아름다운 경치는 천연적인 것이 많겠지만,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한 일본인들의 인위적인 노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신유한도 기행록 곳곳에서 일본의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어 그가 받은 인상의 심각성을 알게 해준다. 예로 하구에서 대판가는 길을 묘사하면서 “모든 집의 담과 벽이 다 화려한 채색이었고 묵혀 둔 땅은 한 조각도 없었다. 낮고 습기가 있었고 거칠할 수 없는 곳에는 푸른 잔디로 금빛 언덕을 만들어서 침도 벨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였다.”(I, p.62)고 감탄하였고, 聞見雜錄에는 “여름 더울 때에도 파리와 모기가 매우 드므니 이것은 방안이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고 어육의 부패한 것은 곧 땅에 묻고 측간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곧 밭으로 옮기므로 파리나 모기가 생길 수 없는 것이다.”(II, p.7)고 그들의 청결 유지 비결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식과 함께 당시 통치행정의 확립과 위정자의 검소함에도 그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시의 관백이던 길종은 비단 옷을 입고 입시하는 신하에게 “내가 입은 목면옷도 족히 덮을 수 있다.”(I, p.70)고 하여 신하들이 감히 비단 옷을 입지 못했다는 일화를 기록하면서, 길종의 위정은 반드시 후하고 질박함을 먼저하여 궁한 백성을 어루만져 주게 하고 관에 대한 빚을 감면하고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혹 코를 베고 발을 베어 사형을 대신 하니 국민들이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했다. 남도에서 쓴 일기에는 3사신 일행의 하루 공급받는 것이 닭 삼백여마리, 계란 2,000여개가 되기까지 하고 온갖 것도 이에 맞추었는데 모두 백성에게 거두어들이지 않고 관청에서 지출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지방의 행정도 관의 횡

53) 海遊錄上, p.56.

… 但見觀男男女女, 三日不散. 露宿風炊, 屯在山阿, 是多處方贏糧客云 …

포와 민폐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⁵⁴⁾ 문견잡록에서는 주, 국의 세법이 각박하여 먼 촌의 농민들이 일년내 경작하고도 풍년에 콩죽도 어려워 아내와 자식을 파는 자도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로 “관백 이하 각주의 태수가 출입할 때도 人夫와 말이 증발되거나 참이나 길에 공급하는 비용이 없이 모두 관에서 돈을 주고 사서 털끝 만큼도 번거롭게 하지 아니하니 백성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II, p.8) 라고 덧붙이고 있다.

다음으로 그들의 시문 창작에서 보여준 줄열합과는 달리 서적 수입과 간행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문화적 수준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강호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대판에 들렀을 때 신유한은 담장로에게서 대판에서 새로 출간된 星槎答響이란 책을 보게 된다. 이것은 신유한과 세 서기가 장로와 화답한 시편으로서 赤間關에 도착하기 이전에 지어진 작품들이었다. “날자를 계산해 본즉 한달안에 출판되었으니 왜인이 일을 좋아하고 이름을 좋아하는 습성이 자못 중화와 다름이 없었다.”(I, p.76) 고 했는 바, 비록 일인의 일 좋아하는 습성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이것은 그들의 능력에 대한 감탄인 것이다. 임술년 사신들과 일본문사의 교류했던 시편도 이미 壬戌使華集으로 간행되어 있었다. 대판에는 書室, 書林이 있어 “고금의 백가서적을 저장하고 출판판매하여 다시 사들여 쌓아 두었고 중국의 책과 우리나라 여러 선현의 전술한 글들이 없는 것이 없었다.”(I, p.63) 고 했는 바,⁵⁵⁾ 이것은 이들에게 그 많은 서적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수준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실제로 대판에서는 퇴계집을 집집마다 외고 있다고 말한다. 김학봉의 해사록, 유서애의 징비록, 강수은의 간양록 등의 책은 두 나라에서 비밀을 기록한 책인데 모두 대판에서 출판되었으며, 신유한이 돌아올 때 新唐書 한질을 그곳에서 사왔다는 것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⁵⁶⁾

다음 그들의 물품 제작시 보여준 척도의 정밀함과 정확함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당시 쇄국정치를 표방한 관계로 중국보다는 서양의 과학적인 기술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척도의 정밀함은 과학적인 면모를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 대마도에서 쓴 일기를 보면 “변소에는 모두 띠자리를 깔았는데 안을 두텁게 짜고 가에 선을 들렀는데 그 척도가 일정하였으며, 문에는 지도리와 자물쇠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매양 한면마다 큰 문짝 3개를 세워 서로 밀고 당겨 열고 닫게 하였는데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었다.”(I, p.52)는 기록이 있고, 이것은 문견잡록에 더욱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일본인의 치밀함과 完

54) 海遊錄上, p.57.

55) 芳賀登은 그의 日韓文化交流史の研究(雄山閣, 1986)에서 당시 大坂의 出版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큰 影響을 준 것으로 보고, 당시 出版된 書目 등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文化交流 양상을 考察할 必要性을 역설하고 있다. pp.52-53.

56) 海遊錄下, p.3.

固함 그리고 척도의 정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⁵⁷⁾

일본에 사행하기 전 신유한은 이미 전임 사신들의 기록에 의해서 일본에 대한 예비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전임 사신들이 어느 지역에서 읍은 사행시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본에 도착한 후 보게 된 일본의 이러한 모습은 그에게도 놀라운 새로운 발견이었고, 여기서 신유한은 시문을 통한 우월성의 과시가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10개월간의 사행기간중 밤을 지새우며 6,000여수의 시를 지었던 것은 조선의 우월성을 견지하려는 그의 민족적 자각의 결정이었다.

통신사들은 사행사에서 자신들을 “漢使”로, 국왕을 “夏王”이라 하여 일본에 대해 조선이 중화의 입장을 대신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⁵⁸⁾ 이것은 명이 망한 이를 대신해 중원을 지배하고 있던 청을 인정하지 않았던 조선조 후기 주자학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그가 서포회선가에서 “북방 손을 향해 오랑캐를 묻지 말라. 중원을 말하자면 슬픔이 많다. 옛날 진나라 사람이 장성을 쌓아 오랑캐를 피하더니 오랑캐 말이 지금은 진나라 땅에서 우네.” 등의 귀절은 그의 이러한 대청의식을 말해준다.⁵⁹⁾

그러나 신유한이 당시 주자학적 명분론자와 다른 점은 화이관에서 벗어나 조선의 독자성에 대한 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의 선비로 태어났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 그는 일본에서 조선의 소중화로 간주되고 있는 것에 갈등을 느낀다. 그는 우삼동에게 왜 조선인을 당인이라 부르느냐고 물었을 때 조선의 문물이 중화와 같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듣는다.⁶⁰⁾ 그는 아무리 한시를 잘 지어도 그것이 조선의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지 않는 한 그것이 중화의 아류로밖에는 취급되지 못함을 느꼈을 것이다. 다음의 말은 그의 이러한 자각에서 울어나온 것이라 보여진다.

“일본의 시나 문 가운데 그 땅의 산수를 두고 짓는 자가 쓰기를 秦山이니 楚水니 洛陽이니 長安이니 吳越이니 燕이니 蜀이니 하였으므로 그 글을 읽으면 일본인인 줄을 모르게 된다. 그것은 지명, 인명이 모두 이상하고 기괴하여 문장을 만들 수 없으므로 중국의 지명을 빌려서 문장을 만든 것이다. 그 땅에 꾀꼬리와 까치가 나지 않는데, 문장에는 꾀꼬리와 까치가 지저귀는 말이 있고, 음악에는 거문고와 비파를 쓰지 아니하면서도 문장에는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두드린다고 쓴 문구가 있고, 띠가 없으면서도 금대니 옥패니 하는 문자를 써서 모두 헛된 이름

57) 聞見雜錄, pp.6-7.

58) 海遊錄上, p.50.

… 南通漢使遠, 東漸夏王賢.

59) 海遊錄上, p.51.

……

莫向北客問中原, 中原欲說多悲悽.

秦人築城昔避胡, 胡馬今看秦地嘶.

60) 聞見雜錄, p.14.

을 쓰고 실지에 맞는 말을 짓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또한 간간이 범하는 일이다.”
(II, p.10)

이것은 일본 한시에 대한 논의이지만, 동시에 조선한시 선언이라 간주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고려조 승려 元湛과 崔滋의 대화에서 이미 보이고 있지만,⁶¹⁾ 이러한 정신이 다시 부활한 것은 19세기 정약용 같은 실학자에게서인 바,⁶²⁾ 신유한은 다산보다 거의 1세기 앞선 사람으로 한시가 조선시대와야 함을 암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의 고유한 언어, 풍속, 학문, 제도를 끊임없이 묻고 자기네의 고유한 풍속, 언어를 내세우는 일본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어진 귀중한 결실인 것으로 보인다.

VI. 결 론

신유한의 해유록은 조선조 후기 12회에 걸쳐 일본에 갔었던 조선통신사중 유일하게 제술관이 남긴 사행집으로, 그 시기가 양국문사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고, 신유한 자신 차원 높은 조선의 시문으로 일본문사들을 굴복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행한 인물이란 점에서 이 책은 18세기 전반기의 한 지식인의 눈에 비친 일본의 현실, 일본 문학의 수준, 그리고 일본한문학사에 작용했을 우리 문인의 역할을 규명하게 한다.

신유한은 일본으로 떠날 때 차원높은 시를 통해 우리의 문화수준을 선양함과 동시에 그들을 문학적 교양으로 회유시키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사행을 마치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신념도 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한 것임을 우삼동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우삼동은 대마도의 기실로 신유한을 동반해서 강호까지 다녀 왔고 그래서 거의 6개월 이상을 함께 생활한 사람이다. 그는 조선어, 중국어 등에 능통했고, 신정백석과 함께 목하순암의 제자로 목문 5절로 불리워지던 인물이었다. 신유한과의 사사로운 필담도 제일 많았지만, 그 밖에 다른 문인들도 거의 우삼동을 거쳐 신유한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유한과는 깊은 교류를 한 셈이다. 신유한이 일본을 떠난지 거의 30년이 되어서도 “백석과 우삼동이 아직은 살아있는지”(白石芳洲今在否)라고 그의 시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일본에서 가진 깊은 교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61) 崔滋. 補閑集中, 高麗名賢集 2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1973), p.125.

62) 丁若鏞, 與猶堂全書, 「寄淵見」

“雖然我邦之人, 輒用中國事, 亦是陋品. 須取三國史高麗史國朝寶鑑與地勝覽懲愆錄黎述, 及他東方文字, 採其事實, 考其地方, 入於詩用, 然後方可以名世而傳後.

우삼동의 첫인상은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신유한은 “그 형상을 보니 얼굴이 푸르고 말이 무거우며 마음 속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자못 문인의 소탈한 기상이 없었다.”(I, p.531)고 했다. 그러나 반년을 함께 보낸 후 두 사람이 대마도에서 작별할 때 우삼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서러워했으나, 신유한은 “내가 그 형상을 보매, 험하고 독하여 평탄하지 못하였고, 겉으로는 문장을 한다고 핑계하면서도 마음 속에는 칼과 창을 품었으니 만약 그로 하여금 국가의 높은 지위에서 권력을 잡게 하였더라면 반드시 이웃 나라에 일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인데도 국법에 국한되어 작은 섬의 한개의 기실에 불과하여 그 땅에 살다가 늙어 죽게 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이니 이별하는 자리의 눈물은 곧 자신을 슬퍼하는 것이다.”(II, p.2)라고 여전히 그를 부정적 시각으로 대하고 있는 바, 이것은 자신의 임무인 교화에 대한 신념은 이미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신유한도 처음에 대마도에 닿았을 때 그들과 예교를 다투었고, 끝내 제술관이 도주에게 절하고 사사로이 예물을 받는 제도를 철폐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예교보다는 시문을 통한 문화적 선양에 더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신유한이 밤을 지새우며 일본문화와의 창화나 일반인들의 과도한 시문요구에 일일이 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러한 책임의식의 소산인 것이다.

그러나 우삼동은 신유한과 이별한지 8년 후 交隣提醒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는데 그는 여기서 조선과의 교린에 誠信之交로 임해야 함을 주장하고 통신사가 大佛寺를 방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여기서는 조선통신사에게 耳塚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의 武力을 시위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간파하면서 이것은 풍신수길의 명분없고 포악한 전쟁을 자랑하는 뜻이 되어 일본의 불학무식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⁶³⁾ 그는 본래 기해년 사행시 대불사가 秀吉의 顯堂이라는 점에서 방문을 거부하는 조선통신사들에게 그것이 家光을 위해 지은 것이라고 우기던 장본인이었던 바, 이러한 변모에는 한 일인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신유한과의 문답에서도 배운 바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⁶⁴⁾

신유한의 해유록은 18세기 조선이 일본에 대해 문화적 시혜국임을 확인시키는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의 진면목을 전달하는데는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신유한은 문사들과 창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시가 평측이 어긋나며 시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⁶⁵⁾ 이러한 측면은 실제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문화적 규범에 동화시키기 어렵다는 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신유한은 이를 통해 그들에게는 과거제도가 없었고

63) 上田正昭, “朝鮮通信使と雨森芳洲,” p.45”

64) 海遊錄中, pp.74-75.

65) 聞見雜錄, p.10.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과거로 인한 시문의 폐해가 없었다는 점을 반성하는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지만⁶⁶⁾ 대체로 그들의 문학적 수준이 낮고 대신 우리의 문화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쪽에 치우쳤다. 또한 일반 백성에게까지 확대된 조선통신사에 대한 시문요구도 우리의 우월감을 부채질하는 자료로서 사용되었을 뿐 이것이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국력의 성장을 암시하는 것임을 밝혀주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신유한의 사행록을 포함한 일본 기행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결함으로 이들을 박제가, 박지원 등의 연행록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들은 무엇보다 청의 문화에서 보이는 우수성을 견문할 때 우리의 것을 비판하고 저들을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신유한은 저들의 청결함을 자주 언급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1936년 도일했던 김세렴은 조선을 떠나기 전 일행에게 일체 기명을 부수거나 더럽히지 말고 꽃은 짓밟지 말며 침을 함부로 뱉거나 대소변을 정해진 곳의에서 보지 말것 등을 고시하고 있다.⁶⁷⁾ 이것은 문화의식에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많았던 것을 의미하는 바, 신유한은 우리 것을 반성하는데 인색했다. 조선통신사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보여주었던 中井積善은 草茅危言에서 “한인은 시를 쓸 때 문진 대신에 다리를 뺀어 발뒤꿈치로 종이를 누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는데⁶⁸⁾ 조선통신사들이 그들의 시문을 양모하는 일인들에 의해 점점 진지한 자세가 없어지고 자만해진 점이 규건된다.

18,19세기를 살았던 다산 정약용은 그의 일본론에서 일본이 이제 무보다 문이 앞서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다산같은 대학자가 바로 50년 후에 태동되는 일본의 정한론과 근대국가로의 성장을 전혀 예시하지 못하고, 유교문화의 교양을 통해 일본을 회유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서 일본은 이제 걱정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는 伊藤仁齋, 蕨生徂來 등의 저서를 접촉하게 된 것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만,⁶⁹⁾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신유한의 해유록을 비롯한 통신사들의 사행록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알맹이 없는 자만심을 부채질한 까닭도 있을 것이다.

18세기 한일문학의 교류양상은 조선측의 사행록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에 산재하는 조선통신사와 일본문사간에 이루어진 많은 창화록과 기타 기록이 모두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밝혀질 수 있을 것임으로, 신유한의 해유록 한권을 통한 그 이상의 확대해석은 일단 유보하기로 한다.

66) 聞見雜錄, p.10.

67) 金世濂, 海槎錄, 海行摠載Ⅳ 影印編, p.43.

68) 李元植, “朝鮮通信使の遺墨”,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p.190에서 再引用.

69) 姜在彦, “朝鮮通信使と靑の浦”,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pp.112-114, “丁茶山の日本觀”, 丁茶山과 그 時代(姜萬吉 外編, 1986, 民音社), pp.147-159. 參考.

A STUDY ON HAEYUROK

Prof. Hai-Soon Lee
Ewha Womans University

Historically Japanese had asked poems to Korean envoys, and thus they seemed to satisfy their desire for culture since the Koryo dynasty. However, it was from 17th to 18th century when Chosun dynasty dismissed her envoys 12 times that the desire had been enlarged to the common people on a large scale.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considering the significances and meanings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through Haeyurok (海遊錄), a travelogue written by Shin Yu-han (申維翰) who went to Japan as a member of Korean envoys in 1719.

The thing attracting our concern, above all, is that Shin Yu-han contacted with a great deal of Japanese people from the various kinds of classes and academic backgrounds at the time.

The people Shin met during his nine months' stay in Japan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was the literary men who wished to chant poems with him together: the other was ordinary common people who attempted to possess anything he wrote, even a rough draft, as a precious treasure. In the former case some of them used to occupy the important place in the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s. They were already well aware of Korean poets and scholars.

In general Shin's association with Japanese literary men were made through exchanging poems. Shin did not regard their poems highly, and even criticized severely their clumsiness, lack of context, artlessness and worthlessness.

What is important is that literary superiority of Korean envoys made it possible Japanese poets recognize their levels and limits and promote to turn their efforts toward their own proper literature, which would be resulted to the early establishment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Although Shin made great efforts to satisfy need and desire of Japanese people through literary works, he also learned many things through this envoiment. He seemed to have felt conflict after seeing richness and beautiful landscape of Japan. Moreover, he found in Japan rapid import and publishment of books, cleanliness, accuracy, orderliness besides Shogung's economy and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on, and came to conclusion that

display of superiority by means of creation of poems was the only and best way to overcome Japanese pride.

In addition what attracts our concern in this travelogue is his recognition of individuality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the contacts with Japanese literary men. Such recognition might also have been caused by cultural exchange with Japanese who often asked about Korean proper characters, scholarship, political system and customs.

Shin's *Haeyurok* is sure to be precious material to reconfirm that Japan owed her culture much to Korea, but his excessive exposure of literary superiority might have given some false impression to the contemporary Korean scholars that Japanese could be changed through literary cultivation, and so they would not invade Korea again.

